

전남, 초강력레이저시설 유치 전면전

지역의 미래 바꿀 첨단 시설
과기부 올 하반기 공모 예정
방사광가속기 실패 뒤 와신상담
GIST 내 레이저시설의 50배
반도체단지·에너지공대와 연계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융합기술 개발을 선도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해 말 각계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지로 유력한 한국에너지공대와 그 주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 본사를 방문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대당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EUV 공정은 반도체 생산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해줘 삼성전자는 물론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지난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특수 작전에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리소프 러시아 총리는 이 무기를 자체 테스트한 결과 5km 떨어진 드론을 5초만에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영화 '스타워즈'의 레이저 무기들이 이제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융합기술 개발을 선도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조원 규모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공모에서 충북에게 아깝게 밀렸다. 그러나 도는 곧바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 준비에 나서 타 시도보다 한참 앞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과 협의체 구성, 부지 선정 및 안전성 검증 등을 마쳤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남도는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어려움 없이 선정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한국에너지공대가 자리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50만㎡의 부지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9000억원의 국비를 투입, 200PW(페타와트, 1000조W)급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소와 IBS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에서 운영 중인 4PW 레이저 시설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 과학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와 전문가 등의 일치된 의견이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레이저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곧바로 산업 현장

에 투입할 수 있는 산·학·연 연계 집약형으로, 초강력·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실, 입자가속실, 레이저 개발 연구실, 플라즈마 물리 실험실, 가속기 응용 연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부 역시 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 '초강력 레이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연구시설 부지는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야 해 전남도가 지난 2020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이어 다시 한 번 타 시도와 경쟁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각계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에 들어간데다, 사업예정지인 나주가 부지 안정성 측면에서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을 약속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여기에 GIST의 기초과학,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광주 광산업 단지와 연계, 국내 유일의 '레이저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국책연구기관·강소기업 유치, 국가

주도 실증사업 추진, 청년 창업 및 인재 양성 등 연 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초강력 레이저 시설의 전남 유치로 호남·충청·경북을 잇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 삼각벨트가 완성된다면 지방이 발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해 에너지, 반도체, 국방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권성동 대표 대행 사퇴... 국힘 비대위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당 대표 직무대행 역할에서 물러나고 조속히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

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조 윤석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대행은 이 대표 징계 이후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 '일통'으로서 집권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권 대행의 이날 입장 표명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배현진, 조수진, 운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권 대행도 직무대행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풍 '송다' 영향 비 광주·전남 50~100mm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

광주지방기상청은 제5호 태풍 '송다(SONGDA)'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2일까지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며,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각각 200mm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에는 1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진, 장흥,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 구례 등 전남 8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태풍 '송다'는 31일 오후 3시 중국 칭다오 남동쪽 360km 지점을 지났다. 1일 새벽 3시에는 중국 칭다오 동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해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다만 1일 오전까지는 태풍 영향을 받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의 강풍 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 등 전남 10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다.

31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km 부근 육상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TRAASES)'가 발생했으나, 중심 최대풍속(10분 평균)이 태풍의 기준(초속 17m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태풍 '트라세'가 1일 낮 12시까지 서귀포 남남서쪽 140km 해상으로 이동하며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코로나19 연일 내지릿 수 '방역 불인' ▶2면

'만 5세 입학' 학부모·교육계 거센 반발 ▶6면



한국의 서원 - 대구 동동서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물 꼭 사용!
1.5리터 패트병!
절수형 변기!
욕조대신 샤워기 이용!
설거지통 이용!
세제와 물은 정량 사용,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

극한 가뭄,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은 하늘의 뜻이지만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부족할수록 아끼고 나누는 생활속의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주세요.